

세뱃돈·상품권 풀린다... 유통가 '후끈'

명절 연휴 직후 '황금 쇼핑의 주' 겨냥

봄맞이·신학기 정조준...특수 선점 경쟁

설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유통업계는 여전히 분주하다.

명절 직후 일주일엔 '황금쇼핑의 주'라 불리는 또다른 특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을 치르느라 고생한 후 보상으로 쇼핑에 나서려는 이들을 비롯해 올해는 밸런타인데이엔 물론 신학기 시즌이 겹친다. 봄 신상품을 찾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새로운 만남 봄'이라는 테마로 매장 이미지를 봄 분위기에 맞게 조성하고 대대적인 봄맞이 마케팅에 나섰다. 또 신학기를 겨냥한 프로모션과 행사도 선보인다.

먼저 14일까지 '롯데 신학기 WEEK'를 통해 신학기 필수 패션 아이템의 하나인 백팩과 아동용 가방세트를 선보인다. '윌라 링크 맥스 백팩'을 13만9천원에 판매하며, 아동용 '뉴발란스 히어로 책가방세트'를 17만9천원에 선보인다.

또 젊은세대에 인기있는 IT 기획전도 마련했다. LG그램 노트북이나 삼성 노트북 S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충전기, 마우스,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최초 특허기술로 완성된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바디프렌드 청소년하이키 안마의자를 328만원에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콘셉트로 한 '미니 웹 드라마'도 제작했다. 립스틱, 백팩, 니트 스니커즈 3가지 신학기 트렌드 아이템을 활용한 이 영상은 롯데백화점의 공식 SN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SNS 이벤트도

진행해 '웹드라마'에 나왔던 패션 아이템을 선불할 예정이다.

롯데아울렛 수안점도 행사가 풍성하다. 오는 28일까지 당일 신학기 상품 15만원 이상 구매고객 400명에게 5천원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13일까지 해외명품 대전을 통해 '프라다 다이어그램 크로스백' (156만8천원), '에트로 페이스리 토트백' (63만원)을 선보인다.

MCM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기존 상설 할인에 추가 20% 할인 혜택을 주는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도 신학기 트렌드 '뉴트로(New-Tro)'를 통해 1020 세대를 공략한다. 요즘 패션계에서는 '뉴트로(New+Retro)'가 핫하다.

7080세대들이 향유했던 문화를 그리워하는 것이 '레트로'라면, 그 문화를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새롭게 레트로(복고)를 즐기는 것을 '뉴트로'라고 한다. 오버사이즈와 과장된 로고가 특징인 뉴트로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1020 세대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핫 키워드이다.

광주신세계에서는 귀여운 시그니처 그릴라 인형으로 유명한 '키플링'에서는 3월3일까지 30% 할인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디다스 키즈'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백

팩, 신발주머니, 카드지갑 3종 세트(15만9천원)를 통해 신학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닥스 키즈'에서는 닥스의 시그니처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체크 배색 키즈백 팩&보조가방(21만원)을 판매한다.

신학기와 봄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활동적인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마이크로 키보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맥시 T 디럭스 키보드(21만 9천원), BMW 클래식 레이션 키보드(27만5천원) 등이 있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영업기획담장은 "설 이후 신학기와 봄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들과 행사를 준비했다"며 "설날의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신학기 준비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지역 백화점들이 명절 직후 특수를 겨냥한 포스트 설 마케팅을 비롯해 신학기·봄맞이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 공략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제공)

"농식품 수출 '그린라이트' 켜드립니다"

aT,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수출 통관 확대·신뢰도 향상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통관 확대를 위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을 지원한다.

aT는 최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지지원사업 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FDA 수입경보(Import Alert)'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가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크게 녹색리스트와 적색리스트로 나뉜다. '녹색리스트(Green List)'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통관절차가 수월한 반면, '적색리스트(Red List)'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어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aT가 지난 연말 발간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이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연간 160여건으로 주요 원인은 ▲미허가 색소를 포함한 식품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혹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라벨 규정 위반 등이다.

aT는 적색리스트 등록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법사항에 대한 수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적색리스트에 오르면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거래선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통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

aT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미국 FDA 통관 거부는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준비 부족에 따른 사례가 대다수"라며 "aT는 앞으로도 한국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하세요

중진공 광주지부, 상담접수 창업 초기기업 성장 디딤돌 재무구조개선 지원 정책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광주 지역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중진공은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돕게 된다.

신청대상은 높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크고, 향후 기업공개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며, 전환사채 발행조건

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60억원이다.

중진공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나 전통산업 영위 기업과 같은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48개 기업 6천310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중진공 김흥선 광주본부장은 "성장공유형 대출이 창업초기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성장사다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IPO 유도 등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혁신성장포럼을 운영하여 IR기회를 확대하고, IPO 진출 목적의 교육, 강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유니콘 기업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지역 차세대 광융합산업체 美 국제전시회서 호응

광산업진흥회, 포토닉스 웨스트에 한국관 운영 10개 기업 참가 해외마케팅...상담·계약 등 성과

한국광산업협회 이끌 지역 차세대 광융합산업체들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함께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시회에 참가, 해외 진출 마케팅을 펼치며 상담·계약 실적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5-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포토닉스 웨스트(Photonics West 2019)'에 공동 홍보를 위한 한국관을 운영해 미국 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포토닉스 웨스트'는 전 세계 광관련 50개국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광융합산업의 세계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다. 미국의 대규모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모스콘(Moscone) 센터에서 2개층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매년 참가해 국내기업들과 공동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광통신 및 광학기기 부품 기업 10개사와 참여해 국내 광융합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해외마케팅센터와 병행한 유망 바이어 네트워크 발굴·수출상담 지원 등 최근 산업동향 분석, 획기적 아이디어 창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광통신·광학기기 부품 구매 등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공동관 운영 성과로 참여기업 10개사는 1천250만불의 상담실적과 ㈜엘엠에스 등 2개사는 계약예정액 68만불의 성과도 거뒀다.

공동관에 참여한 기업은 조만간 열린 한국광산업진흥회 '상반기 국내 수출상담회'와 오는 8월 '2019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전시회에 초청,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관에 참가한 케이에스포토닉스(주)의 서원석 대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 5-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포토닉스 웨스트'에 한국관을 마련하고 지역 10개 기업의 해외 진출 마케팅을 지원, 결실을 거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광통신·광학기기 시장의 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당사에서 개발한 'Mode Division Multiplexer'를 중점적으로 전시·홍보하고 그간 사업 참여로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차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조웅진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국의 통신 및 광학제품의 미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운 현실이지만 관련 사업의 글로벌 5G 시장 및 IOT융합산업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전국 광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설 연휴 무안공항서 하루 평균 2천635명 해외로

국제선 이용객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설 연휴 기간 무안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항공편 148편에 모두 2만3천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제선은 120편으로 1만8천449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2천635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지난해 설 연휴 동안 하루에 1천 193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2.2배 증가했다.

국내선은 28편으로 모두 4천554명이 이용해 전년 2천895명(20편)에 비해 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은 모두 166만명으로 국내선 124만명, 국제선 42만명이 항공편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9.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은 25만6천여명이 공항을 이용해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볐다. 대구공항은 이날 하루에만 1만5천33명이 이용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전국 공항에 근무 인력을 늘렸다"며 "홍역 등 질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 여행객들의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벤처기업 자격 상실

중기부, 4곳 인증 취소...업계 "정부가 사행성 낙인" 우려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림),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빙벙(비티씨코리아), 코빗, CPDAX(코인플러

그) 등 7개 업체다.

이 가운데 빙벙과 코빗은 이미 벤처기업 인증 기한이 지나 별도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업종을 변경해 벤처기업 인증을 새로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매매업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한 모든 업체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원해야 할 정부가 사행성 낙인을 찍었다"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발전과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우수개발 인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산단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북부소방서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제공)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이하 '산단공')는 북부소방서와 공동으로 최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에는 첨단국가산단 1단지 내 IBC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을 비롯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근로자를 격려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시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행만 본부장은 "모든 사고는 사소한 방심,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설 명절 연휴기간을 비롯한 동절기 공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

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 직원으로서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제 84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번호
1	16 29 33 40 45	6
1등 총당첨금액		20,803,389,00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원)
1등	6개 숫자 일치	1,891,217,182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1,914,849
3등	5개 숫자 일치	1,701,29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